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척척법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5일 (수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내용 요약]</p> <p>책을 읽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토의하였음. 또한 책에 나온 철학자들의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토의함.</p> <p>『정의란 무엇인가』</p> <p>1강. 옳은 일 하기</p> <p>1)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35쪽) 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p> <p>*공통된 의견은 ‘이러한 발상에 문제점이 있다’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통용되는 선과 악(도덕)을 정해두는(법) 건 위험하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기 때문이다. -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와 ‘도덕을 고려해서 법으로 규정’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한다. - 나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나치가 독일 자국민을 회유한 ‘도덕’이 존재한다. 나치가 규정한 인간상에 부합하지 않은(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모두 죽었던 것이 그 근거이다. 인간(독일인)을 미적으로 중시하고, 유대인,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열등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그들을 학살시키는 것을 동의하도록 세뇌한 것들이 도덕이 아니었을까? <p>1) - 1 추가 질문</p> <p>그렇다면 도덕이 아니라 무엇을 법을 규정해야 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사건을 놓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p>2) “아프가니스탄의 염소 치기”(40p)</p> <p>미군은 염소 치기(2명)를 죽이지 않았고 그 결과 19명이 죽었다. 만약에 미군이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염소 치기를 죽이는 것이 옳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으로서 죽이는 게 옳았다고 생각한다. 군인의 책무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군인이 양심 때문에 남은 생활을 평생 고통스럽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죽었어야 한다. 군인은 그럴 책임이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갔으면 자신의 신념보다는 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

- 단순히 숫자를 두고 비교해봤을 때 19명이 죽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2명과 19명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2명이 죽는 것이 바르다고 여겨진다.

- 단순히 몇 명이 죽느냐보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군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 전쟁상황에서 그들은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그러므로 2명을 죽였어야 한다.

2강. 최대 행복 원칙

1)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70p) 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은 과연 타당한가?

- 미국의 비만율과 미국의 인스턴트 식품이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햄버거와 피자를 싼 가격에 인스턴트식품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가 이익만을 얻는 구조는 아니다. 분명 소비자는 싼 가격에 이를 자주 구매할 수 있지만(대가) 그만큼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다는 고통이 뒤따른다.

- 우리나라의 압축적 근대화, 빠른 성장의 결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것을 타당하냐 아니냐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는 어렵다.

- 대한민국 입시제도가 대가를 받고 치르는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 (추가 질문) 대가는 과연 수험생이 받는가? -> 아니다. 그저 이러한 입시제도는 저렴한 방식으로 사회를 굴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CHAPTER 1. 승자와 패자

1) “우리가 가진 몫(성취한 것)은 운의 결과”(53p) 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성취했다고 할 수 있는가?

- 이러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운에서 비롯된다. 내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금수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나를 서포트해줄 집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성취한 것들이 운의 결과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순수노력만으로 성취했다

고 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들은 승자와 패자를 계속해서 나누기 때문이다.

1)- 1 (추가 질문) 그럼 우리 몫은 나누는 게 공정하나?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야 한다. 존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 개념을 빌려와 말하자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것과 별개로 나누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누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한 행위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시민 수준이 높고 공정한 사회라면, 이러한 분배 체계를 만드는 것에 찬성할 것이다.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1)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66p) 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며, 어떤 점에서 위험한가?

매력적

- 능력보다도 출신이 가치 있던 시절에서 근대적 주체가 탄생한 거니까 그런 점이 매력적이라고 여겨진다.
- 배분 과정이 편리하고 명료하다.
- 보상심리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위험

- 능력도 결국 운이다.
- 능력을 규정하는 것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위험하다. 그러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고 낙인찍힐 수 있다.
- 능력주의는 인간을 쓸모로 단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건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스펙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에서 쓰이던 말이다. 그런 단어가 인간에게 쓰이는 건 인간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단어가 우리 능력주의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패배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계속 쓸모를 증명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옳은가? 성장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나온 것은 알지만 이러한 행태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완전히 옹호하지는 못하겠다.

2021년 5월 5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척척법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 장 소 : zoom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내용 요약]</p> <p>책의 큰 주제였던 시장의 도덕성, 자기 소유, 기회의 평등, 교육 등을 중심으로 생각을 공유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책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책이 쓰인 배경인 미국과 현 사회에 해당 문제점을 반영하여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어 토의하였다.</p> <p>『정의란 무엇인가』</p> <p>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는가?</p> <p>1)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이유: 해당 문제는 3강의 핵심주제로 우리 사회에 팽배한 자유지상주의 및 자유 시장 철학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선정하였다. <p>*공통된 의견은 ‘소유한다고 볼 수 없다’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 우리는 세금도 내고 있고 공동체 사회에서는 옳게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인간에게 쓸모를 물을 수 있는가 처럼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며, 결국 자살을 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위험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관료제 국가로서 생산성은 높지만, 행복도는 낮고 자살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다. 그런데도 자살률이 높은데 온전히 자신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안락사 허용 국가는 스위스, 복지국가고 생활의식이 높은데 그런 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사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p>1)-1 추가 질문</p> <p>안락사를 복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락사를 허용하지만, 스스로 재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과 삶의 질이 							

있으므로 그런 복지 하에서 그러한 상태에서 허용하는 안락사의 허용은 복지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하에서 안락사를 허가하면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

1)-2 추가 질문

죽고 싶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을까?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외부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스위스는 그렇다고 할 수 있나?

- 스위스 국민마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하는 것이 있으므로 온전한 소유라고 할 수 없다. 야경꾼 국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4강 대리인 고용: 시장의 도덕성 문제

1)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105p)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 선정 이유: 4강은 징병제와 모병제, 대리모 등 우리가 살 수 없는 가치까지도 사고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과연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지, 독자가 만약 나라면 팔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하므로 서로 저자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정리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 돈으로 사고판다는 것은 경영에서 나온 말이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맨큐가 모든 사회질서 위에는 돈으로 사고팔 수 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대두되었으나 결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은 국가가 무언가를 중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로서는 사고팔 수 없다고 해도 사고팔고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다.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신체적 건강, 시간, 인간관계 등등 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인간관계 같은 경우 비물질적이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있는 자가 모든 것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돈으로 살 수 없어 보이는 것들도, 돈으로 사고팔아서 안 되는 것들도 돈 있는 자들에 의해 시장화되고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

- 1)-1 추가 질문

그렇다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숫자로 환산이 가능한 가치를 지닌 것들인가?

-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 없음을 넘어서서, 그것들에 돈(숫자로서 환산 가능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의 예로 나는 사랑을 들고 싶다. 사랑은 돈으로도 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사랑이라는 가치는 절대적인 영역이 아닌 상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돈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지만 사고, 팔아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사고,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관계나 마음까지도 사고, 팔고 있다. (일본의 남자친구 대여 서비스처럼) 사고, 팔 수 '있다'에서 '있다'는 의미는 그러할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 우리는 그렇게 사고, 팔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일부 사고, 파는 경우(자동차의 판매를 허용하면 사망률이 늘어나지만, 사회적 이득을 위해 그것을 용인하듯)가 있을 수 있어도, 신의칙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듯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경계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금지하고, 우리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다는 착각』

CHAPTER 03: 사회적 상수를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 1)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사기 위해 장기를 판 학생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08p)
 - 질문의 선정 이유: 해당 질문은 센델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자 했던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가 얼마나 팽배한 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정의란 무엇인가 3단원의 질문과도 연관하여 논의해보면 좋은 주제가 되리라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 * 모두가 학생의 선택이 자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으며, 시장의 원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회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어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장기관 인간에게서 떼 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사람의 장이나 생명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서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를 살아가며 온전한 자신의 선택이란 존재 할 수 없고, 생명이라는 가치에 타인의 판단이나 사회의 압력이 적용될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이자, 폭력이 되고, 결국 생명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학생이 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장기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싶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정이 있었거나, 본인만 그 제품이 없어서 박탈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이것이 단순히 이 학생의 개인적 가치관이 잘못된 문제라기보단, 이런 기기가 없으면 안 되는 현 상황, 경제 수준에 따른 학생들 간의 박탈감을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는 범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가 이뤄지는 상황일수록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컴퓨터나 아이패드가 없어서 나라의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 다수겠지만, 근래 뉴스에서 보기를 한 컴퓨터를 가지고 아이들이 돌려가면서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 세심한 관리가 부족해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아진다고 한다. 적어도 이렇게 박탈감과 경제에 따른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서 온전한 본인의 의사로 장기를 사고, 팔았다고 할 수 없다.
 -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아이패드와 아이폰과 같은 물질적인 것과 교환 가능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기를 판 학생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주변 환경적 영향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자신의 신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신체를 상품화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교환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무척 잔인하게 느껴졌다.
 - 현재는 '보이지 않는 손'(by 하이에크)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경제 체제다.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처분권의 안정과 존중이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다. 위 학생의 사례는 그가 자신의 신체와 아이패드, 아이폰 사이에 교환할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즉 그는 교환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 현재는 분명 인간적 가치, 인간 고유의 존재적 의미를 사유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파고에 휩쓸린 금세기는 시장경제를 넘어 모든 곳에서 시장 논리가 작용하는 '시장사회'가 되었다(저자 마이클 센델은 그의 또 다른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시장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학생의 선택이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그를 책망할 수 있을까?

2) 미국에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다. (113p) 이러한 미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 선정 이유: 미국은 모두가 '기회의 땅'으로 인식할 정도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다고 믿고 있으며 결국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해내지 못한다면 너의 책임이라는 개인 책임론이 사회에 팽배한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의 복지대상인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은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이며, 과연 이러한 복지정책 및 기회의 평등은 이상적인가에 대해 토의해보고자 하였다.
- '자신의 잘못'의 범위는 끝이 없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초교육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게 본인이 노력해야 했지만, 본인이 노력하여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잘못이라는 말은 그저 많은 사람을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식 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잘살기에는 현시대에서는 힘이 든다. '노력'이라는 말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같은 출발 선상에 세웠다고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 기회의 평등을 주는 것과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맥락이다.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한데, 미국 사회에서 오직 복지 혜택을 통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에 대한 유의미한 해결책을 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기회를 공평하게 받았다고 여길지언정 그것이 정말 공평한 기회였는가는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극명한 진실은, 미국의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이다. 개인의 성과나 지능, 학력 수준 등에 따라 사회적 능력을 나누어 개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 권력, 나아가 계급마저 규정당한다. 센델에 따르면 능력주의는 상위층에는 자부심과 우월함을, 하위 계층에게는 노동할 사기를 잃게 하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 그러한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모종의 방안이 기회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의 평등은 미국 사회에서 이상과 진보, 선구적인 사회를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에 불과하며,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능력주의가 팽배한 미국에 기회의 평등이 구현될지 의문이다. 또한, 기회의 평등은 명민한 인재가 합당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뺏는다는 반대 주장에 명쾌히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CHAPTER 0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1) 교육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46p)

- 질문의 의도: 센델은 해당 부분에서 능력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대부분 사람이 학력 및 교육을 통한 성과의 경우에는 온전한 노력의 결과로 여긴다. 그렇다면 교육은 정말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자 하였다.
- 최소한의 격차는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분명 계층별로 교육의 수준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이 다르다. 기초교육이 제공되어도 서로의 경제환경이 다르므로 최소한의 방어책과 사다리 역할을 할 뿐. 온전히 공부만 할 수 있고, 학비 걱정이 없이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과 학비와 생계를 걱정하며 공부하고 기초교육이 최선인 아이들 사이에는 가치관 격차, 생활 수준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길이 열렸다고는 하지만 특정 정해진 부분의 교육과 성공만을 성공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졸 출신 국회의원, 일명 '사'자 직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성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은 더욱 고착화되고, 교육만으로는 불평등은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렇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느냐가 무척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는다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교육 만능주의는 아녀서 교육만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돈을 가진 자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구별 짓기를 위해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기본이고, 그에 더하여 법률적인 부분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하나는 당대의 지배 계층의 탐욕과 부정부패, 사회에 암울한 분위기'만'이 감돌면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가 최후의 발악을 하듯, 시민들은 사회를 직접 뜯어고치기 위해 총과 칼을 든다. 두 번째는 시민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화되었을 경우를 꼽고 싶다.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법규, 이데올로기, 불공정,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 과정으로 설정되었는지 즉 사회구조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도처 곳곳에서는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2021년 5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척척박사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1년 06월 03일(화요일) / 장 소 : 교내							
참석자 명단	학번	2019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김**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배**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내용 요약]</p> <p>책 <공정하다는 착각> 5장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5장은 현재 능력주의를 토대로 운용되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한다. 토론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은 저자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하지만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끝내 현 미국사회의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저자에게 아쉬움을 숨길 수 없었다.</p> <p>『공정하다는 착각』</p> <p>CHAPTER5. Success Ethics</p> <p>01) 책에서는 기회조차 없던 과거와 달리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p> <p>- 사회가 점점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책 <팩트풀니스>에서 말하듯이 전 세계 문명률과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 그러나 한편 심화되는 사회적 불평등은 부정할 수 없다. 몇 십 년 전에는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잘 사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것이 현재는 소수의 이야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질문1에 대한 답은 동의이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못한다. 모두에게 기회가 풍족한 시대에 서있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렇기에 기회가 풍족하다는 것은 선부르다.</p> <p>- 빈곤층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 모두가 고르게 다방면의 기회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교육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차등화된 성적을 줄 시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다. 사회 속에는 대중 언어와 고급언어가 존재한다. 고급언어를 자주 사용할수록 그 학생은 점수를 딸 때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다. 결국 공교육 등의 분야에서조차 그 속에서 누군가는 교묘한 구별 짓기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 완전히 기회가 열린 시대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구현된 시스템을 사회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이용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p> <p>- 저자의 논지가 아쉽다. 능력주의를 비판한 것까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니……. 또한 한국사회에 사는 우리가 재고해봐</p>							

야 할 문제인데, 책의 미국사회와 우리나라는 역사와 문화, 시민의식, 정치 체제 등 상당한 지점에서 상반된 차이를 보인다. 미국사회는 저자의 주장처럼 확실히 능력주의 사회지만, 한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능력지상주의 체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실로 '금수저 담론'이 짙으니, 책 속 사회적 문제와 한국사회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는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 맞다. 저자는 덕성, 즉 사회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도덕에 대해 강조한다. 개인의 사회적 성공, 재능, 능력은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 발생했으니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의 말이 일리 있지만, 실은 덕성이란 추상적 관념체계를 무엇을 어느 범위로 규정하고 합의하여 현실로 재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다시 말해 저자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

- 그런데 능력지상주의와 '금수저' 담론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는 특히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운이자 사회적 '성공'까지 인식되는 나라다. 한국만큼 재벌가 직계세습이 빈번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즉, 한국사회는 개인이 능력이 부재해서 성공하지 못 했기보다, 그저 부유한 부모를 못 만나서 계층 이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에 반해 능력주의는 마치 네 성공은 온전히 너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입장이다.

- 둘의 차이가 명확히 이해되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저자 같은 저명한 학자가 등장해 21년도 한국만의 문제나 주요 시사점을 다뤄주길 바란다.

01-2)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에 따르면 금세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층민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근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능력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괴심을 유발한다는 것이지요. 기회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이 낮은 지위에 매여 있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 과거에는 현대의 사회 구성원들만큼 신분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을 것이다. 감히 노비인 내가 양반의 입지를 넘보는 것은 금기에 가까웠다. 또한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일과 여가가 구분되지 않았다. 생존을 위해 살기에도 바빴다. 17세기 서구를 중심으로 계몽주의, 그 후 동양에는 인내천사상 등이 부상하기 이전에는 문제의식이 없어서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그런데 자긍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과잉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

떻게 생각하는가?

- 자긍심보다는 과거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식의 부재가 적절하지 않을까? 자의적으로 저자의 논지를 이해해본다면, 현재 3포 세대에 속하는 우리 내 원 계층이 하층민이면 중층으로, 중층이면 상위 계층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이동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다시 말해 표면상으로 사회로부터 상당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포기할 것들이 많다. 알고 모르고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 직업에도 계급이 존재한다. 적어도 한국사회에선 여전히 -사 직업은 고귀하고, 몸을 쓰는 일은 하층민으로 은근히 계급을 나눈다. 계급 간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 루트에 다양성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 맞다. 성공의 기준을 단호히 정해놓고, 네가 실패한 인간 같다면 학업 등의 사회적 성공에 달하라고 강요한다. 우리 사회의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자세에 회의를 느낀다.

- 하층민은 어느 시대에나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모순됨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노예제에 찬성했다. 구성원 중에는 천성적으로 자유인을 추구하는 개인과 노예의 속성에 들어맞아 지배를 받아야 하는 개인이 분리돼 존재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노예와 더불어 여성이 포함된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지배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배구조를 정당화할 관념질서를 퍼뜨린다. 결국 능력주의도 그러한 관념질서의 특성을 가지지 않나 싶다.

02) 내 재능의 혜택을 내가 온전히 누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혜택을 배분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사회가 그런 혜택을 공동체 전체에 어떤 방식을 통해 배분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 하나요?

- 소득의 재분배와 결부되는 질문2는 지난 해 문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인 코로나 생활 지원금, 자영업자 지원금을 상기시킨다. 또한 몇 해 전부터 스위스 같은 복지국가에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기본 소득이 떠오른다.

- 곧 능력주의의 허상이 수면 위에 오를 것 같다. 비트코인·주식이 성행하는 이유는 현재 불로소득이 노동의 가치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노동의 신성함을 신봉하는 시대는 지났다. 과연 능력이 전부일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시대에 부의 분배와 불평등 이슈는 점점 사회 중심의 문제로 입지할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변환될 가능성을 제기해본다.

- 동의한다. 소설 1984에 등장한 빅 브라더 같은 첨단기술을 통해 세계

가 하나로 통합될 수도 있다.

- 또한 국익을 중시하는 동시에 능력주의가 희미해지는 지금 이 순간 국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성은 무엇일까? 역사는 일종의 순환이다. 역사를 반복된다. 진보와 퇴보를 거치는 시스템이다. 태곳적 원시사회처럼, 어쩌면 공산주의로, 씨족사회에서 지금에 가장 최선의 시스템이라 여기는 자본주의로 돌고 돈다는 말이다.

- 사실 정의로운 사회라는 말이 너무 어렵지 않나 싶다. 자본주의조차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는데 말이다.

- 완벽한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완벽에 수렴하는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후대에 평가되는 아테네사회의 정의조차 사실 완벽하지 않았다. 이 또한 지배자들에 의해 행해진 도편추방제 같은 원인이 있다.

결론

- 교육의 중요성을 깊게 느낀다. 자신이 처한 불평등을 깨달으려면, 더욱 구성원 스스로 불평등을 경계할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완벽한 정의를 실현해낸다고보다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계층간 화합의 의지를 계속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정의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우린 세속적 성공의 방향을 강요당한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거머쥐는 결과는 특정 계층에 몰리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은 얼마나 정의로운 사회인가?

- 순수학문을 의무적으로 배울 필요를 강조한다. 모든 것은 인식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은 무료함, 따분함을 견뎌내기 위해 노동 이외의 것을 찾아야 하기도 하고, 진짜 불평등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구 교육(소위 죽은 지식)에서 나아가 효용만 추구하는 현 시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이 순수학문이라고 생각한다.

2021 년 06 월 05 일

참가자대표 : 김**